

제10회 신행수기 입상작  
특별상(천대종 총무원장상)

되찾은 희망 (하)

변속이 (대구시 북구 관음동)

기도를 마치고 돌아온 남편에게 3월 만  
에 여기저기 직장에서 들어오라고 연락이  
왔다. 그 후 남편은 절에도 잘 나가고 불심  
을 키우며 바르게 잘 살고 있다.

요즘은 불법에 귀의하게 된 것을 남편이  
더 고마워하고 있다. 그 후부터 나는 포교  
에 자신감을 갖고 부처님 앞에 원을 세우고  
1년에 한 명 이상에게 꼭 포교하고 있다.

신앙생활도 무르익어 어언 10년이 될 즈  
음 보듬이 가까워지면 웬지 마음이 설레고  
보듬달이 그렇게 곱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.  
달빛이 아쉬워 밤을 하얗게 새운 적도 있  
다. 아파트 배란기에 나가 쪼그리고 앉아  
관세음보살을 부르다가 또 달을 쳐다보고  
있노라면 그 때 그 스님, 무원 스님이 보고  
싶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.

있다는 인사도 드리고 싶지만 웅기 없는 이  
중생 한 마디 말도 못하는 바보입니다. 무  
원 스님이 저를 부를 때 7대 조사님의 원력  
으로 불렀겠지요. 그러나 그 스님 옷 대신  
대조사님의 탄신일 날 꽃 시주 하시라고 공  
양금을 올리겠사오니 그 스님을 귀하게 봐  
주시고 멋지고 멋진 최고의 장삼을 대조사  
님께서 입혀 주십시오.”

간절히 기도하는데 눈물이 비 오듯 흘러  
내렸다. 기도를 마치고 잠이 들었는데 꿈속  
에서 천상의 세계를 보았다. 그 세계는 이  
루 말로도 글로도 표현 할 수 없는 세상이  
었다. 내가 보고 느끼던 그 순간이 얼마나  
행복하고 좋은지 이 세상 부귀영화가 아무

살다 가도록 노력하리라.  
작은 것부터 실천 수행하여 다음 생엔 꼭  
천상세계에 태어나고 싶다. 기도를 통해서  
나의 전생도 보았고 일상생활에 약간의 고  
통도 있었지만 기도로 다 해결되고 항상 평  
범하게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.

그 다음해 여름이 다시 왔다. 갑자기 남  
편이 베트남에 1년 동안 연수를 떠났다. 마  
음도 허전하고 하얀겨 주간이라 구인사로  
3일 기도를 갔다. 4층 기도실에서 기도를  
하는데 눈물이 나서 멈춰지질 않았다.

기도를 할 수가 없어 바람 쐬려고 밖으로  
나왔다. 그 때 약속이나 한 듯 저 밑에서 무  
원 스님이 또 올라 오셨다.

실로 향했다. 그 후부터 생각도 의문도 다 문  
어든 채 모두 하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.  
그러자 스님이 보고 싶은 마음도 점점 사  
라지고 구인사에 기도. 그 스님을 마주치는  
횟수도 차츰차츰 멀어졌다.

그러나 보듬달빛은 여전히 고와 잠 못 이  
룰 때가 있다. 그 때는 이런저런 마음을 다  
치우고 용맹정진 한다.

그 해 스님을 만난 몇 달 후 내가 다니던  
사회에서 내게 신도회 간부직을 맡아 달라  
는 부탁이 들어왔다. 부녀회장 3년을 마치고  
다음해엔 재무부장을 하고, 시골이라 재  
정이 넉넉하지 못한 그 사찰을 위해 경리일  
을 4년간 무료봉사했다. 그 때 무원 스님은  
구인사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계셨다. 주지  
스님의 배려로 간부인기를 마치면서 부산  
에 있는 모 호텔에서 열린 2박3일 간부파  
티에 참석했다. 너무나 재미있고 감명 깊  
었다. 간부파티에는 무원스님이 사회를 보  
고 대덕 스님들과 전국 사찰 신도회장님들  
이 참석해 계셨다. 내가 감히 그 자리에 걸  
수도 없었는데...

모든 의심 끊고 기도에 열중  
마음 안정되니 모든일 '환희'

리 좋아도 그 순간하고 바꾸지 않으리라는  
생각까지 들었다.

깜짝 놀라 일어나보니 누운 지 불과 5분  
이었다. 꿈인지 생인지 안타까워 몸부림쳤  
지만 소용이 없었다. 그러나 그 기억은 그  
누구도 가져갈 수 없도록 내 마음에 깊이  
이 뿌리박혔다.

열심히 관음정진하며 부처님 정법대로

스님은 나를 보더니 "보살님, 나한테 뭐  
할 말 있어요?"라고 했다.

눈물을 줄줄 흘린 채 말을 할 수가 없  
고 고개만 끄덕였다. "내 방 몇 호실로 오세  
요"라고 지나갔는데 우노라고 방 호수를  
잊어 버렸다. 식당 마당 마루에 앉아 눈물  
을 두고 진정을 취해서 무작정 내려가 보  
았다.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 마음을 나  
와도 그렇게 정확하게 만날 수 없었다.

스님께서는 나를 보더니 첫 마디가 "보  
살님, 남편은 뭐하는 사람입니까? 슬하에  
자녀는 몇을 두었습니까?"하고 물더니만  
"보살님이 나한테 묻고 싶은 말 있으면 물  
어보세요"라고 했다. 그 때 내가 "스님, 그  
때 스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불렀  
을까, 그게 생활하면서 늘 궁금합니다"라  
고 하니 "왜 불렀을까 생각하지 말고 열심  
히 기도해요. 다 인연이 있었기에..." 하  
는 짧은 답변을 한 마디 했다.

"예"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기도

모두가 한 마음이 된 그 자리에서 무원  
스님과 함께 한 그 시간을 영원히 잊을 수  
가 없다. 다 같이 손뼉치고 노래 부르면 화  
합된 그 자리가 감명 깊었다.

열차를 타고 돌아오며 난 생각했다. 부처  
님은 나에게 이렇게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 
추억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 주셨는데 나는  
과연 신도님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.  
영광을 조금이나마 회향하고 싶었다.

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올려 퍼지고 자비의  
종소리가 퍼질 때 나도 한 해를 마무리하며  
조금이나마 보람된 일을 해야 되지 싶어 남  
편한테 뜻을 전했다. 돈을 주며 격려했다.  
쌀도 사고 두툽한 조끼며 내의 등을 사서  
우리 사찰 신도 중 어려운 보살 집에 찾  
가서 선물을 전하며 위로를 했더니 너무나  
고마워했다. 받은 것보다 나누는 기쁨이  
그렇게 크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.

실천수행을 통해 베푸는 기쁨이 어떤 것  
인가를 맛볼 때 신앙생활 중 그 어느 것보



그림 · 문병성

다도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. 큰 시주도 해  
보고, 간부 생활도 하고, 절소임도 맡아보  
고, 불교 교리도 배우고, 스님 법문도 듣는  
등 무엇이든 해봤지만 어려운 이웃이나 장  
애인, 소외받는 노인들을 돕는 것이 나는  
내 맘에 제일로 와 닿고 또 제일 보람차게

느껴졌다.  
그래서 나름대로 꿈과 희망을 갖고 올레  
엔 대학교 사회복지과에 지원했다.  
앞으로는 전문적인 지식도 쌓고 사회에  
봉사하며 살 수 있도록 꼭 합격해서 내 꿈  
을 이루었으면 좋겠다. (끝)

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

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폭풍 뒹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  
오.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한 소정의 고료로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, 연말에 최종 심  
사를 거쳐 시상합니다.

- 주제: 신행 및 수행 체험,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
- 분량: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(A4용지 4장)
- 접수처: (110-170) 서울시 종로구 경치동 110-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
- 문의 전화: (02)722-4162
- 인터넷 접수: renvy@buddhapia.com

현대불교신문 지사장 신규 모집

현대불교신문은  
새로운 10년의 첫 해를 맞아 지역 포교사를 모집합니다.

불교의 생활화 · 현대화 · 세계화를 사시로 불교계 언론을 선도하는 가장 믿음직한 포교지인 현대불교신문사에서  
지역 포교소식을 정성으로 알리는 불교홍포에 앞장서실 활동적인 지사장님을 모집합니다.  
부처님 가르침의 참 뜻을 생활 속에서 되살려내는 정상의 신행 포교지인 현대불교신문 지사장 모집에 많은 관심과  
지원을 바랍니다.

- 1) 신규 개설 모집 지역 - 충남 / 대전, 강원권, 울산 / 경주 / 포항, 제주권
- 2) 지사의 사업활동 내용 - 해당지역 내 독점 구독확장 및 광고수수 사업 전개 - 본사 주최 사업활동 진행 - 지역 내 취재활동 지원 및 기사 제보
- 3) 구비서류 및 제출기한 - 구비서류: 자필이력서(사진부착), 자기소개서, 사업 활동계획서, 추천서(사양면회장 또는 교구 본사급 주지스님), 주민등록등본 각 1통씩 - 제출기한: 2005년 3월 6일(토) - 제출방법: 우편(3.6일 도착분만 유효) 또는 직접방문 접수.
- 4) 제출처: 서울 종로구 경치동 110-33 현대불교신문사 교각부 전화 02)737-0090(直), 02)737-8881(代) 팩스 02)737-0697

**불교문예학과 불교문학전공 석사·연구과정 신입생 모집**

◆ 접수마감 : 2005. 2. 28  
◆ 모집과정 : 석사과정 (2년) / 연구과정 (1년)  
◆ 접수방법 : 방문접수 / 우편접수  
◆ 지원자격 : - 석사과정  
1)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, 또는 받을 예정인 자.  
2)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.  
- 연구과정 : 남·여, 학력, 연령 제한 없음

**불교문예학과 불교음악전공 특별과정 신입생 모집**

- 구해 스님 (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장, 본교 초빙교수)
- 만춘 스님 ('불교의식각론' 저자, 본교 전임교수)
- 법현 스님 (동국대학교 국악과 부교수, 본교 객원교수)

교육과정	강 의 내 용	담당교수
기초의식	도량서, 종성, 향수해례, 행신축원, 신중지법, 화엄사서, 사시마지, 오분향례 등	구해 스님 만춘 스님
범 패	출소리 : 할향, 합장계, 복장계, 도량계, 거불, 기명 등	구해 스님 만춘 스님
작 법	나비춤·도량계, 다계, 사방요신 등	법현 스님

◆ 수강대상 : 남·여, 학력, 연령 제한 없음  
법음법패 및 작법을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
◆ 특 전 : 수료 시 무형문화재 제50호 '영산재보존회'에서 발급하는 인증서 수여

www.dongbang.ac.kr 문의전화 (02)745-2141

재충전을 통한 성취감을 느껴보세요!

**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교육원**  
수 강 생 모 집

<p><b>불교문예 분야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사찰 기초의식 습의과정</li> <li>◆ 범패·무용 실기과정</li> <li>◆ 불교조각·불화 실기</li> <li>◆ 불전기초·대승경전연구</li> </ul>	<p><b>사주명리 분야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사주명리 초급·고급과정</li> <li>◆ 주역과 현대생활 응용</li> <li>◆ 점성술·복사육화 응용</li> <li>◆ 육임·기운둔갑 미래 예측</li> </ul>	<p><b>민화진채 전문인 과정</b></p> <p><b>명실상부한 전문인 양성! 서공임교수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서 공 임 : 한국민화작가회 수석 부회장</li> <li>◆ 모집정원 : 20명</li> <li>◆ 수 강 료 : 100만원</li> <li>◆ 교육기간 : 3월 첫 주부터 16주</li> <li>◆ 교육시간 : 목요일 10:00~16:00 (6시간)</li> </ul>
<p><b>서화예술 분야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서예(한문·한글) 실기</li> <li>◆ 조각 예술 실기</li> <li>◆ 문인화·수묵화 실기</li> <li>◆ 율치화·채묵화 실기</li> <li>◆ 도판(도자기 서예) 실기</li> <li>◆ 서·화문 선독 과정</li> </ul>	<p><b>생활홍수 분야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생활에 응용되는 풍수</li> <li>◆ 인테리어와 풍수응용</li> <li>◆ 주거설계와 풍수응용</li> <li>◆ 풍수를 통한 부동산 전략</li> </ul>	<p><b>접수 및 등록기간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접수마감 : 2005. 2. 28</li> <li>◆ 수강대상 : - 남·여, 학력, 연령 제한 없음</li> <li>◆ 교육기간 : - 2005년 3월 첫 주부터(16주)</li> <li>◆ 제출서류 : - 입학원서(본원 소정양식) - 사진(3cm×4cm) 2매</li> <li>◆ 접수방법 : - 방문 접수 / 온라인 접수</li> </ul>
<p><b>외국어 회화 분야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중국어 회화</li> <li>◆ 일본어 회화</li> <li>◆ 한문 사서</li> </ul>	<p><b>자연치유 분야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사주학을 통한 한방 연구</li> <li>◆ 대체의학을 통한 자연치유</li> <li>◆ 기공을 통한 건강생활</li> <li>◆ 전래 한방비전 연구</li> </ul>	

www.dongbang.ac.kr 문의전화 : (02)745-2141

**건실한 불자님을 모집합니다**

연령 25세~65세, 남자는 군필요임

本社は 장영실 과학기술대상에 빛나는 FREE FROM FIRE(불안나) 사업본부입니다. 세계32개국에서 특허를 득하였고, 이번에 전 지구촌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, 우선 성실한 불자님 000명의 동참을 바랍니다.

1. 화재예방 진압이 극히 간편한 혁명적입니다.
2. 유독가스가 전혀없고, 새집 증후군을 완벽하게 차단합니다.
3. 30여종의 부대사업으로 무한한 기업성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.

영어, 중국어, 일본어, 스페인어, 독일, 불어 능통자 특별우대

이력서, 자기소개서지참, 회사내방 원함

서울 종로구 모동 영신빌딩 501호  
TEL. 02)741-5051~3  
FAX. 02)741-5054